

# 고진영 시즌 첫 승... '전설' 소렌스탐 넘다

HSBC 위민스 챔피언십 우승  
LPGA 통산 13승 고지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  
30라운드 연속 언더파 신기록  
전인지·이민지 공동 2위  
이정은 18홀 통한의 더블보기



고진영이 6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탄종 코스에서 열린 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역사를 새로 쓰며 시즌 첫 우승을 따냈다.

고진영은 6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탄종 코스(파72)에서 열린 LPGA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17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25만5000달러다.

공동 2위에 오른 전인지, 이민지(호주-이상 15언더파 273타)를 2타차로 따돌린 고진영은 이번 시즌 첫 출전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하면서 통산 13승 고지에 올랐다.

전인지는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쳤고, 이민지는 데일리 베스트인 9언더파 63타를 몰아쳤다.

고진영은 작년 11월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2연승이다. 더불어 최근 참가한 10개 대회에서 6차례나 정상에 오르는 등 초강세다.

고진영은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와 '30라운드 연속 언더파'라는 두 가지 신기록도 세웠다.

60대 타수는 작년 BMW 챔피언십 2라운드부터 이어왔고, 지난해 에비앙 챔피언십 4라운드부터 언더파 스코어 행진을 계속했다. 두 기록 모두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넘어선 것이라서 의미가 더했다.

연속 라운드 60대 타수 종전 기록은 소렌스탐, 유소연 그리고 고진영의 14라운드였고, 연속 언더파 라운드 종전 기록은 소렌스탐과 리디아 고(뉴질랜드), 고진영의 29라운드였다.

고진영은 이번 우승으로 세계랭킹 1위 장기집권 토대를 다졌고, 상금왕 4연패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석 달 넘게 경기에 나서지 않았지만, 고진영의 샷과 퍼트는 여전히 예리했다. 특히 코스 난도가 더 높은 후반에 더 강했다.

앞선 1~3라운드에서 후반 9개 홀에서 33타-34타-33타를 쳤던 고진영은 이날도 후반 9개 홀에서 32타를 적어내며 역전극을 펼쳤다.

7번 홀까지 고진영은 버디를 하나도 잡아내지 못해 우승 경쟁에서 밀려나는 듯했다. 이정은과 전인지, 아타야 티피쿤(태국)이 버디를 쓸어담으며 저만치 앞서나갔다.

8번 홀(파5)에서 버디 물꼬를 튼 고진영은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보이며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13번 홀부터 16번 홀까지 4개 홀 연속 버디 쇼를 펼치며 공동선두로 치고 올랐다.

고진영은 승부사담계 18번 홀(파4)에서 쐬기를 박았다.

이정은과 공동 선두로 18번 홀을 맞은 고진영은 페어웨이에서 핀을 보고 곧장 아이언을 때린 뒤 내리막 3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승부를 갈랐다.

이정은은 18번 홀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린 데 이어 벙커와 러프를 오간 끝에 더블보기를 적어내 2

위까지 놓쳤다. 3타를 줄인 이정은은 5언더파 67타를 친 티피쿤과 함께 공동 4위(14언더파 274타)에 만족해야 했다.

4타를 줄인 양희영이 공동 6위(13언더파 275타), 6언더파를 친 김아림(27)이 공동 9위(11언더

파 277타)를 차지했다.

이 대회 세 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박인비는 4타를 줄여 공동 17위(8언더파 280타)로 대회를 마감했다. 작년 우승자 김효주는 공동 26위(6언더파 282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 KBO, 시범경기 개막 앞두고 코로나 '몸살' KIA, 코치 등 양성... KT와 연습경기 취소

오는 12일 시범경기 개막을 앞두고 KBO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KIA 타이거즈에서도 양성 반응자가 나와 연습경기가 취소됐다.

KIA는 지난 5일에 이어 6일에도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KT 위즈와 연습경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5일 연습경기가 끝난 뒤 진행한 자가키트 검사 결과 코치 1명과 직원 1명의 양성이 확인됐다.

이에 6일 오전 전체 선수단과 프런트의 자가키트 검사가 진행됐고, 선수 1명이 추가로 양성 결과를 받았다. 양성이 확인된 3명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양성 반응자가 나오면서 KIA는 6일 연습경기 일정을 취소하고 일찍 광주로 복귀했다. 또 7일 훈련 일정도 취소하고 휴식일을 보내면서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본격적인 실전을 앞두고 코로나 변수가 발생하면서 선수단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KIA에서는 캠프 전 4명의 선수가 코로나로 고생을 했다.

입국 후 자가 격리 기간 확진 판정을 받았던 소크라테스는 다행히 일찍 캠프에 참가하면서 순조롭게 시즌 준비에 나섰지만, KIA가 기대한 두 신예 자원들의 시즌 준비는 많이 늦어졌다. 당초 1군 캠프 명단에 있었던 선수는 재활군에서 캠프를 시

작한 뒤 아직 1군 풀업을 받지 못했다.

캠프 중반에는 2군 캠프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큰 영향 없이 KIA 시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시즌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엔트리 경쟁을 벌이는 시점에 코로나 변수가 등장했다.

이는 KIA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5일에는 두산 베어스에서 신속항원 검사 결과 9명이 양성 나오면서 LG 트윈스와 연습경기가 취소됐다.

6일에는 NC 다이노스, 한화 이글스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데 등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프로야구판에도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KIA는 8·9일 한화와의 연습경기를 끝으로 스프링캠프 일정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12일 창원으로 가 NC와 시범경기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각 구단에서 매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범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확진자 증가 추세에 이동도 빈번해지면서 코로나 위험성도 증가할 전망이다.

겨우내 구슬땀을 흘리면서 시즌에 맞춰 페이스를 끌어올렸던 선수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코로나가 시즌 초반 각 구단의 중요한 전력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조 1위·한국축구 자존심 걸렸다

월드컵 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24일 서울서 속적 이란과 대결

조 1위 자리와 '축구 자존심'이 걸린 한국과 이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경기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란과의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9차전 홈 경기를 2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미 확정했다. 그러나 아시아 최강 자리를 두고 오래 경쟁해온 이란과의 홈 맞대결은 여전히 '빅매치'다.

한국은 최종예선 A조에서 승점 20점으로 2위에, 이란은 승점 22점으로 1위에 올라있다.

/연합뉴스

## 전남드래곤즈 골 침묵... 충남아산과 0-0 무승부

전남드래곤즈가 골 침묵을 이어갔지만 시즌 첫 승점을 쌓았다.

전남이 6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3라운드 충남아산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안양원정서 0-1패로 시즌을 열었던 전남은 이어 김포FC와의 홈 개막전에서 0-2패를 기록하면서 2연패에 빠진 상황. 이날 안방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노렸지만 기다렸던 골이 나오지 않았다. 승전보는 올리지 못했지만 무승부로 시즌 첫 승점을 더했다.

전남 초반은 충남아산의 흐름이었다.

전남 9분 충남아산 송승민이 페널티지역 바로 앞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김강국이 커커로 나서

때린 공이 전남 골대를 맞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초반 위기를 넘긴 전남이 공격에 나섰다.

전남 27분 손호준이 올린 크로스를 김태현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전남 35분에는 발로텔리가 공을 몰고 상대 진영까지 진입했지만, 슈팅을 앞두고 상대 수비진에 봉쇄됐다.

하지만 전남 38분 코너킥 상황도 살리지 못한 전남은 전남 41분 골키퍼 김다솔이 강민규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0-0으로 전반전을 마감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카차라바를 투입한 전경준 감독이 후반 16분에는 플라나를 넣으면서 발로텔리와 함께 세 외국인 선수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세밀함이 부족했다.

후반 3분 카차라바의 헤더가 상대 골키퍼 박주

원국이 이번에 이란을 꺾으면 조 1위 자리를 빼앗는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석은 6만6000여석 규모여서 홈 팬 응원 소리가 벤투호에 더 큰 힘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벤투호는 이란전을 치른 뒤 29일 원정으로 치르는 아랍에미리트(UAE)와 10차전을 끝으로 최종예선을 마친다.

이 두 경기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은 14일 발표된다. 선수들은 21일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로 소집된다.

/연합뉴스

원의 품에 안겼고, 8분에는 발로텔리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흘렀다. 후반 34분 키차바나, 플라나, 발로텔리가 삼각 편대를 형성하면서 두 차례 슈팅도 시도했지만 골대를 뚫지는 못했다.

후반 39분 플라나의 왼발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고, 1분 뒤에는 왼쪽에서 발로텔리가 공을 띄운 뒤 카차라바의 헤더가 이어졌지만 이마저도 골대를 벗어났다. 막판 공세에도 끝내 시즌 첫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 전남은 '햇님 공방' 끝에 승점 1점 획득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광주FC는 휴식라운드를 보냈다. 올 시즌 K리그2는 김포의 가세로 11구단 체제가 되면서, 매 라운드 1팀씩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